

# 모범·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비교 분석

김 윤 희\* 신 혜 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의 방법
- III. 연구결과
- IV. 논 의
- V. 결 론
- 참고문헌
- 부 록
- 영문초록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인간의 행위는 의사소통적 가치를 지녔다고 보고 사회에서의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의사소통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인간관계를 의사소통을 주고 받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또는 교류의 의미로 간주한다. 따라서 가족을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의사소통체계 또는 의사소통망으로 보고 그의 기능을 통해 가족원의 상호관계 행위를 이해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이미 체계론적 가족이론의 의사소통접근학과(Mental Research Institute : MRI)들에 의해 지지된 바 있다(Gurman, Kniskern, 1981, 270~271; Jansen, Harris, 1980, 15; 김미영, 1989,8; 김종욱, 1985.99). 또한 의사소통에는 제 1수준의 표면적인 전달내용과 제 2수준의 음성, 억양, 몸짓, 말의 강도등 두 수준이 있어 제 1수준의 전달내용과 제 2수준의 태도가 일

지될 때 의사소통의 완전한 단위가 존재하며, 이때는 내용과 태도가 일치하는 의사가 교류되나 두 수준이 합치되지 않을때 의사소통은 분명치 않고 이중메시지가 전달되며 전달자의 진실성 결여로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증상 (이상행위)이란 어떤 특수한 조직속에서 그 조직에 맞는 이탈된 방법의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온 결과에 따른 의사소통의 산물이므로 이해 가능하다는 것이다.(Foley, 1974; Haley, 1980; 원혜정, 1983)

그렇다면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맥락에서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재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과도기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불균형의 심한 긴장이 일어나는 때이므로 언제나 혼란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또한 이때는 청소년들이 자아의식의 발달과 함께 부모의 의존성으로부터 유리되고져 하는 강한 독립심의 육구와 동료집단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떨어지는 때이다(Olson, 1983, 171). 다시 말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성인이 되기 위한 성장을 하고 부모는 가장 적극적인 양육의 결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주기중 스트레스가 가장 많을 때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관계하고 있는 가족원들과의 지각은 일치성이 없고 축적되는 부모-청소년간의 불일치 때문에 가족내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결국 부모와 청소년

\* 김윤희 : 정신간호학교수  
\*\* 신혜숙 : 정신간호학조교

은 서로 딴 세계에서 살게된다(Olson et. el., 1983).

이와같은 특성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는 그들의 인격 성숙을 위해 부모의 가치나 신념, 행동, 지도가 그들의 인격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서구에서는 이미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 연구를 통해 세대간의 의사소통 양상이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숙과 관계가 있고 (Steinberg, Hill, 1978, Olson, et. el., 1983) 청소년의 주체성 형성 및 역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Cooper, 1982), 비행의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Hetherington Martin, 1979; Jacob, 1975; Alexander, et. al., 1973, 1977; Masselam, 1989) 비행치료를 위해 가족치료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고 임상적, 실험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어 (Gurman 1981; Patric, 1986) 비행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체계적 맥락에서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 또는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을 분석한 연구는 물론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분석해 놓은 연구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이론과 연구결과를 근거로 결국 청소년 비행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 결여로 야기된 그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범·비행청소년군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녀의 비행행위와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관계가 규명될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을 근거로 간호사가 청소년의 비행을 선도하고 치료하는 일 뿐만 아니라 예방대책을 모색하는데 기여가 되리라 생각되어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모범·비행청소년간의 부모-자녀의사소통차이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행위가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의한 산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 비행의 선도 및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모범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반응점수는 낮을 것이다.

<부가설 1> 모범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간 개방형의사소통반응점수는 낮을 것이다.

<부가설 2> 모범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간 문제형의사소통반응점수는 낮을 것이다.

가설 2 : 모범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지각불일치점수는 차이가 심할것이다.

##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법을 이용한 사후조사연구(expost facto design)이며 도구개발(1988. 3~1988. 5)과 예비조사(1988.6~1988.8)를 거쳐 자료수집(1988.9~1989.1) 및 자료처리(1989.1)를 하였다.

### 1. 연구대상

현재 청소년자녀 (16세~19세)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시내 거주 가족으로서 먼저 청소년을 선정한 후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소년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모범청소년 :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남녀 고등학교(남자 4개교 4학년씩 16개 학급, 여자 2개교 4학년씩 8개 학급)재학생중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첫째, 현재 양쪽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고 둘째, 성적이 학급에서 20% 이내의 상위권에 해당되며 셋째, 행동이 모범인자로 하였다.

비행청소년 : 가정법원에서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 4 조 1항에 의거하여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

위를 하여 범죄소년이란 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교육기관인 경기도 소재 K소년원에 수용되어서 그곳의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첫째, 서울 거주자이며 소년원 입원당시 양쪽 부모님과 동거했고, 둘째, 소년원에 입원한지 6개월을 넘지 않았으며 셋째, 소년원 입원당시 학생이었던 자로 하였다.

연령을 16세~19세로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검찰청 자료(1981~1986)에 의한 비행실태의 연령분포에서 소년범죄자중 16~19세 연령층에서의 범죄율이 79.7%~8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법무연구원, 1986, 72-74).

(1)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모범군·비행군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두 구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대상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77)

특 성 구 분	전체(N=277) 모범군(N=190) 비행군(N=87)			X <sup>2</sup> -test	
	실수(백분율)	실 수(백분율)	실 수(백분율)		
성 별	남	224(80.86)	140(73.69)	84(96.55)	X <sup>2</sup> =31.883*** df=1
	여	53(19.14)	50(26.31)	3(3.45)	
연 령(세)	16~17	143(51.62)	102(52.67)	41(47.12)	X <sup>2</sup> =9.856 df=1
	18~19	134(48.38)	88(46.33)	46(52.87)	
	평균	17.48	17.44	17.57	
종 교	유	177(63.90)	116(61.05)	61(70.11)	X <sup>2</sup> =2.890 df=1
	무	100(36.10)	74(38.95)	26(29.89)	
형제순위	말	100(36.10)	78(41.05)	22(25.99)	X <sup>2</sup> =8.742 df=2
	중간	65(23.47)	37(19.47)	28(32.18)	
	막내	106(38.27)	71(37.37)	35(40.23)	
	독자·독녀	2(0.72)	1(0.53)	1(1.15)	
	외아들·외딸	4(1.44)	3(1.58)	1(1.15)	
친부모유무	친부·친모	265(95.67)	190(100.00)	75(86.21)	X <sup>2</sup> =27.394*** df=2
	친부·계모	9(3.25)	-( )	9(10.34)	
	계부·친모	3(1.08)	-( )	3(3.45)	

\*\*\*p<.001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중 성별, 친부모 유무별 비교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종교유무, 형제순위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즉 성별분포에서 모범군(73.9%)에 비하여 비행군(95.67%)의 경우 유의한 수준에서 남자가 훨씬 많았고(X<sup>2</sup>=31.883, df=1, P<.001), 친부모 유무 분포에서는 모범군의 경우 모두가 친부모인것에 비하여 비행군의 경우 13.79%가 계부·계모이었다(X<sup>2</sup>=27.394, df=2, P<.001).

그리고 청소년들의 평균연령은 모범군의 경우 17.44세, 비행군의 경우 17.57세이었고, 종교유무 분포의 경우 종교를 가진 청소년이 모범군(61.05%), 비행군(70.11%) 모두 많았으며 형제순위분포에서 두군 모두 말이(36.10%)와 막내(38.27%)가 많았다.

(2)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2>와 같이 이들 특성중 부의 연령, 부와 모의 학력 및 직

업, 경제상태, 이혼경험, 자녀수등에서 모범군·비행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의 연령 비교에서 비행군의 연령이(평균 47.8세)높았고 ( $X^2=9.841$ ,  $df=3$ ,  $P<.05$ ), 부와 모의 학력비교에서 모범군 부는 중·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이상이 (97.37%) 많고 비행군 부는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졸업(91.95%)이 많아 모범군에 비하여 비행군 부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X^2=97.453$ ,  $df=2$ ,  $P<.001$ ). 또한 모의 경우 모범군 모는 중·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이상이 (92.04%) 많고 비행군 모는 국민학교 졸업과 중·고등학교 졸업(97.70%)이 많아 모범군에 비하여 비행군 모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X^2=87.670$ ,  $df=2$ ,  $P<.001$ ).

직업비교에서 부의 경우 모범군 부는 사무직(35.79%)과 판매직(24.7%)이 많고 비행군 부는 노동자(44.83%)와 숙련공(19.54%)이 많아 모범 청소년에 비하여 비행 청소년 부의 직업이 하위 직종에 속합이 나타났다( $X^2=83.821$ ,  $df=6$ ,  $P<.001$ ). 모의 경우 유의한 수준에서( $X^2=22.903$ ,  $df=6$ ,  $P<.001$ ) 모범군 모(33.68%)에 비하여 비행군 모(48.28%)의 경우 직업을 더 많이 갖고 있었고 업종도 근로자(25.29%)가 많았다.

경제상태비교에서 유의한 차이( $X^2=19.248$ ,  $df=2$ ,  $P<.001$ )로 모범군(7.89%)에 비하여 비행군의 경우 빈곤층(26.44%)이 많았다.

부모들의 이혼경험유무비교에서 부의 경우 이혼 경험(3.61%)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가 비행군 부에 해당하였다( $X^2=22.657$ ,  $df=1$ ,  $P<.001$ ).

자녀수비교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 $X^2=41.012$ ,  $df=1$ ,  $P<.001$ ) 모범군의 경우 평균 2.68명(1명~5명)이었고 비행군의 경우 평균 3.08명(1명~9명)이었으므로 모범군에 비하여 비행군의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비교에서 모의 연령은 두군간의 차이가 없었고(모범군 43.7세 비행군 45.3세) 종교는 두군 부(모범군 56.84%, 비행군 63.22%)와 모(모범군 77.89%, 비행군 72.41%)의 경우 모두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두 군 공히 모 쪽에서 이혼경험이 비슷하게 있었다(모범군 2.63%, 비행군 6.90%). 그리고 가족유형비교에서 대

부분 핵가족(모범군 79.47%, 비행군 83.91%)이었다.

## 2. 표집방법

앞에서 기술한 기준에 맞는 대상을 전수 선택하였다. 그 결과 모범청소년 235가족, 비행청소년 111가족중 무응답, 불충실한 응답 및 기타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사용된 자료는 모범청소년 190가족, 비행청소년 87가족, 총 277가족(부·모·청소년)의 자료 831부가 이용되었으며 표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범청소년 가족: 선정된 학교의 담임교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맞는 학생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 및 허락을 얻은 뒤 학생용, 아버지용, 어머니용의 3종류 질문지 봉투를 준 후 집에서 응답하되 서로 응답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밀봉해 오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250가족중 235가족(705명)의 질문지가 회수(회수율 94.0%) 되었다.

비행청소년 가족: 청소년의 경우 선정된 K소년원 교육담당자가 선정기준에 맞는 연구대상자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 및 허락을 구한 뒤 기록상의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고, 응답한 후 곧 바로 회수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면회를 온 부모에게 면회 신청서 실무자가 연구의 목적 및 취지등을 설명해 주고 동의를 구한 뒤 기록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응답을 하도록 하고 곧 바로 회수하였다. 그 결과 모두 195가족중 111가족의 질문지가 회수(회수율 56.92%)되었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 소요시간은 청소년의 경우 약 10분정도, 부모의 경우 20분~25분 정도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부모-자녀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20문항의 질문지, 그리고 대상자(청소년자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관련 제특성을 알기위해 구조화한 질문지(청소년용: 5문항, 부모용: 17문항) 등이다.

번안시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2인

<표 1-2> 연구대상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77)

특 성	구 분	전 체(N=277)	모범군(N=190)	비행군(N=87)	X <sup>2</sup> -test
		실 수(백분율)	실 수(백분율)	실 수(백분율)	
연령(세)	부 : 40미만	8(2.89)	5(2.63)	3(3.45)	X <sup>2</sup> =9.841* df=3
	41~50	188(67.87)	139(73.16)	49(56.32)	
	51~60	77(27.80)	45(23.68)	32(36.78)	
	61이상	4(1.44)	1(0.53)	3(3.45)	
	평균	48.4세	47.8세	49.6세	
	모 : 40미만	45(16.25)	33(17.37)	12(13.79)	X <sup>2</sup> =6.130 df=2
	41~50	210(75.81)	147(77.37)	63(72.41)	
	51~60	22(7.94)	10(5.26)	12(13.79)	
	평균	44.2세	43.7세	45.3세	
	종 교	부 : 유	163(58.84)	108(56.84)	55(63.22)
무		114(41.16)	82(43.16)	32(36.78)	
	모 : 유	211(76.17)	148(77.89)	63(72.41)	X <sup>2</sup> =0.460 df=1
	무	66(23.83)	42(22.11)	24(27.59)	
학 력	부 : 전문대졸업이상	116(41.88)	109(57.37)	7(8.05)	X <sup>2</sup> =97.453*** df=2
	중·고등학교졸업	137(49.46)	76(40.00)	61(70.11)	
	국민해득·국교졸업	24(8.66)	5(2.63)	19(21.84)	
	모 : 전문대졸업이상	46(16.61)	44(23.16)	2(2.30)	X <sup>2</sup> =87.670*** df=2
	중·고등학교졸업	180(64.98)	130(68.94)	49(56.32)	
	국민해득·국교졸업	51(18.42)	15(7.90)	36(41.38)	
직 업	부 : 전문직	14(5.05)	13(6.84)	1(1.15)	X <sup>2</sup> =83.821*** df=6
	관리직	38(13.72)	35(18.42)	3(3.45)	
	사무직	81(29.24)	68(35.79)	13(14.94)	
	판매직	58(20.94)	47(24.74)	11(12.64)	
	숙련공	27(9.75)	10(5.26)	17(19.54)	
	근로자	53(19.13)	14(7.37)	39(44.83)	
	실 직	6(2.17)	3(1.58)	3(3.45)	
	모 : 전문직	7(2.53)	7(3.68)	- (-)	X <sup>2</sup> =22.903*** df=6
	관리직	6(2.17)	5(2.63)	1(1.15)	
	사무직	13(4.69)	10(5.26)	3(3.45)	
	판매직	38(13.72)	24(12.63)	14(16.09)	
	숙련공	7(2.53)	5(2.63)	2(2.30)	
	근로자	35(12.64)	13(6.84)	22(25.29)	
	가정주부	171(61.73)	126(66.32)	45(51.72)	
경제상태	부 유	17(6.14)	15(7.89)	2(2.30)	X <sup>2</sup> =19.248*** df=2
	보 통	222(80.14)	160(84.21)	62(71.26)	
	빈 곤	38(13.72)	15(7.89)	23(26.44)	
이혼경험	부 : 유	10(3.61)	- (-)	10(11.49)	X <sup>2</sup> =22.657*** df=1
	무	267(96.39)	190(100.00)	77(88.51)	
	모 : 유	11(3.97)	5(2.63)	6(6.90)	X <sup>2</sup> =2.846 df=1
	무	266(96.03)	185(97.37)	81(93.10)	
자녀수(명)	1~2	112(40.44)	89(46.84)	23(26.44)	X <sup>2</sup> =41.012*** df=3
	3~4	148(53.44)	97(51.05)	51(58.62)	
	5~9	17(6.12)	4(2.11)	13(14.94)	
	평균	2.80명	2.68명	3.08명	
가족유형	핵가족	224(80.87)	151(79.47)	73(83.91)	X <sup>2</sup> =0.758 df=1
	확대가족	53(19.13)	39(20.53)	14(16.09)	

\*P<.05

\*\*\*P<.001

의 대학원 졸업 조교와 3인의 교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청소년 자녀를 가진 일반 26가족(부·모·자: 78명)에게 예비검사후 수정보완하여 제작되었으며, 도구의 내용과 타당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자녀 의사소통 측정도구

가족내의 의사소통 및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하여 1982년 David H. Olson과 Howard L. Barnes가 개발한 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도구를 Olson의 동의를 얻고 번안하여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하위척도인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 하위척도인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은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소통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와 모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자신의 지각을 보고 하고 자녀는 부 및 모와의 상호관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각각의 반응을 보고하기 위해 부모용, 청소년용등 두종류가 있다.

본 도구는 20개의 항목중 개방형 10항목(총수항목의 합: 1, 3, 5, 7, 9, 11, 13, 15, 17, 19), 문제형 10항목(적수항목의 합: 2, 4, 6, 8, 10, 12, 14, 16, 18, 20)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이므로 각각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사결과는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에서 Chronbach  $\alpha$ 값이 .82,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에서의 Chronbach  $\alpha$ 값이 .72, 총 척도에서 Chronbach  $\alpha$ 값은 .86 이었다.

#### 4. 자료처리방법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의사소통 관련 제 특성 파악을 위해 백분율과  $X^2$ -test를, 그리고 모범군·비행군의 의사소통 비교 분석을 위해 t-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주요예측요인 추출을 위

해 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 1. 가설검증

청소년의 비행행위가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의한 산물인가를 확인키 위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모범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반응점수는 낮을 것이다."

부모-자녀의사소통반응에 대한 두군 가족간의 차이를 t-test를 검증한 결과, <표 3-1>, <도 1-1>과 같이 유의한 차이( $t=2.77$ ,  $P<.001$ )로 모범군(평균 3.61)에 비하여 비행군의 점수(평균 3.48)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3인(부·모·자녀)의 반응비교에서 부와 모의 경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반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의 반응 ( $t=2.42$ ,  $P<.05$ )에서 모범군(평균 3.35)에 비하여 비행군의 반응점수(평균 3.17)가 낮았고 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반응 ( $t=2.30$ ,  $P<.05$ )에서도 모범군(평균 3.66)에 비하여 비행군의 반응점수(평균 3.49)가 낮았다.

따라서 가설1은 지지가 되었고 비행청소년가족은 모범청소년 가족에 비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

<부가설 1>: "모범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반응점수는 낮을 것이다."

개방형 의사소통반응비교(도 1-2 참고)에서 모범군가족과 비행군가족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족 3인(부·모·자녀) 각각의 반응비교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와 모의 반응은 차이가 없었으나 부 및 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의 반응에서 차이가 있어 부의 경우 ( $t=2.41$ ,  $P<.05$ ), 모범군(평균 3.12)보다 비행군의 반응점수(2.92)가 낮았고, 모의 경우( $t=2.50$ ,  $P<.05$ )에서도 모범군(평균 3.57)보다 비행군의 반응점수(평균 3.35)가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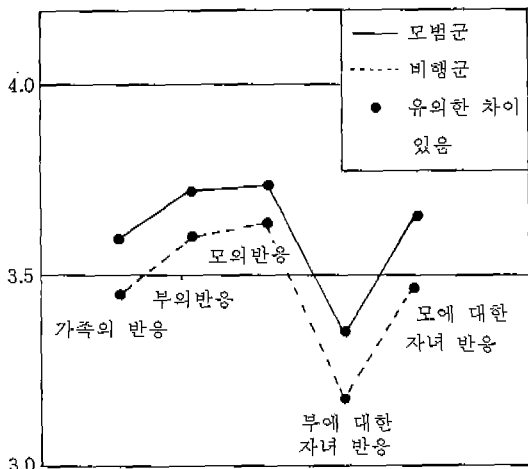
<표 3-1> 모범·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반응점수 차이검증

(N=277)

구분		계(가족의 반응)		부의 반응		모의 반응		자녀의 반응								
		평균	표준오차 t값	평균	표준오차 t값	평균	표준오차 t값	부	모	부	모					
개방형	모범군(N=190)	3.46	.03	1.74	3.55	.04	-.37	3.60	.03	-.24	3.12	.05	2.41*	3.57	.05	2.50*
	비행군(N=87)	2.36	.05		3.57	.06		3.62	.06		2.92	.07		3.35	.07	
문제형	모범군(N=190)	3.77	.03	3.50**	3.88	.03	3.12**	3.87	.03	3.44**	3.58	.05	2.06*	3.75	.04	1.68
	비행군(N=87)	3.60	.04		3.70	.05		3.66	.05		3.42	.06		3.62	.07	
의사소통	모범군(N=190)	3.61	.03	2.77**	3.72	.02	1.36	3.74	.03	1.82	3.35	.04	2.42*	3.66	.04	2.30*
	비행군(N=87)	3.48	.04		3.64	.05		3.64	.05		3.17	.06		3.49	.06	

※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가 많음을 의미함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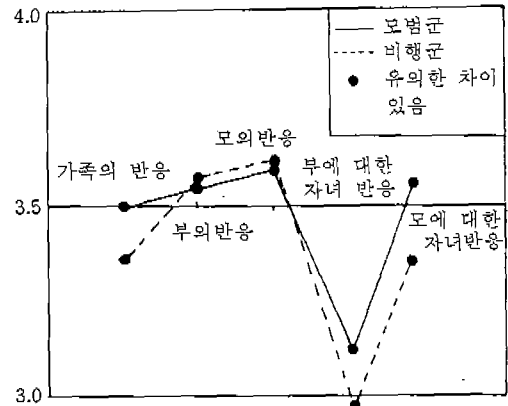


<도 1-1> 모범군·비행군가족의 의사소통반응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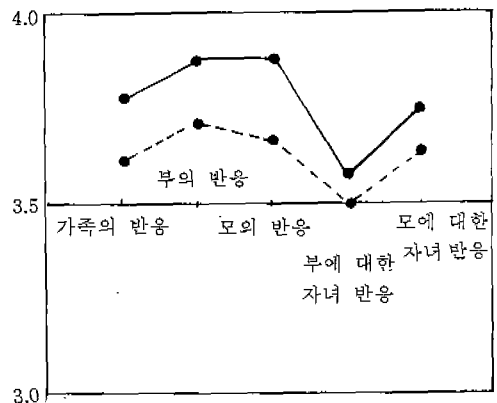
았다.

따라서 <부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와 모의 반응에서는 지지가 되지 않았으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의 반응에서는 지지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들은 두군 모두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에 비해 자녀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라고 느끼며 특히 모범청소년 보다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더욱 심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있다.



<도 1-2> 모범군·비행군의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반응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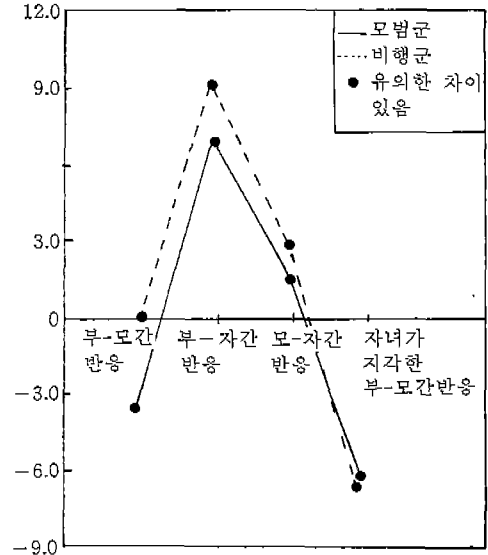
<도 1-3> 모범군·비행군의 부모-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반응비교

<부가설 2> : “모범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반응점수는 낮을 것이다.”

문제형 의사소통 반응비교(도 1-3참고)에서 두군가족간에 유의한 차이( $t=3.50,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범군 가족(평균 3.77)에 비하여 비행군가족(평균 3.60)의 반응점수가 낮았다. 또한 가족 3인 각각(부·모·자녀)의 반응비교에서 부의 경우 유의한 차이( $t=3.12, P<.01$ )로 모범군(평균 3.88)에 비해 비행군의 점수(평균 3.66)가 낮았고, 모의 경우 또한 유의한 차이( $t=3.44, P<.001$ )로 모범군(평균 3.87)에 비해 비행군(평균 3.66)의 반응점수가 낮았으며, 자녀의 경우 또한 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반응에서 유의한 차이( $t=2.06, P<.05$ )로 모범군(평균 3.58)에 비해 비행군의 반응(평균 3.42)이 낮았다. 그러나 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의 반응에서는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부가설 2>는 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의 반응을 제외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 및 모의 반응, 그리고 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의 반응에서는 지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의 경우 모범청소년에 비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더욱 어려움과 장애가 많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비행군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는 자신들의 의사소통이 모범군에 비하여 부정적이고 문제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도 1-2>에서와 같이 모범군, 비행군 모두의 경우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와 모의 반응 양상에서는 모와의 의사소통보다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낮은 반응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모범군이건 비행군이건 부 및 모는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이 자녀들에 비해 개방적이고 문제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모보다는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더욱 많다고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도 1-4> 모범군·비행군가족의 지각불일치 반응비교

다.

가설 2 : “모범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지각불일치 점수는 낮을 것이다.”

모범·비행군 부모-자녀간의 세대간격을 파악하고자 의사소통에 대한 두군간의 부모-자녀지각 불일치점수 차이를 t-test로 검증한 결과는 <표 3-2>, <도 1-4>와 같다. 부-모간의 지각불일치점수에서 두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부-자녀간의 반응(모범군  $t=8.14, P<.001$ , 비행군  $t=6.59, P<.001$ ), 모-자녀간의 반응(모범군  $t=1.80, P<.05$ , 비행군  $t=2.13, P<.05$ ),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의 반응(모범군  $t=-9.14, P<.001$ , 비행군  $t=-6.00, P<.001$ )비교에서는 모범군·비행군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지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범군·비행군의 경우 부와 모간에는 세대간격이 없으나 부모-자녀사이에는 현저한 세대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비행군에게서 더욱 심하였다. 더욱이 주지할 만한 사실은 모범군·비행군 모두 모-자녀간 보다 부-자녀간의 세대차이가 더욱 심하다는 점이다.



<표 3-2> 모범군·비행군 가족불일치점수차이 검증

(N=277)

구 분	계(N=277)			모범군(N=190)			비행군(N=87)		
	평균	표준오차	t값	평균	표준오차	t값	평균	표준오차	t값
부-모간 지각불일치	-.26	.53	-.49	-.374	.69	-.54	.00	.74	.00
부-자간 지각불일치	7.91	.67	10.45***	7.26	.89	8.14***	9.34	1.42	6.59**
모-자간 지각불일치	2.00	.74	2.72**	1.55	.86	1.80*	3.01	1.42	2.13*
부모-자녀간 지각불일치	9.92	1.34	7.57**	8.81	1.50	5.86***	12.36	2.58	4.80***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지각불일치	-6.16	.56	-10.94**	-6.08	.67	-9.14***	-6.33	1.06	-6.00***

\*P<.05 \*\*P<.01 \*\*\*P<.001

2. 추가분석

1) 모범·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간의사소통 관련 제 특성 비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소통관련 제 특성들을 비교하기 위해 두군간의 차이를 t-test로 검증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와 나누는 하루의 평균 대화시간은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없이 '20분~30분'정도가 가장 많았고(모범군 45.26%, 비행군 55.17%) 부와의 대화기회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차이는(모범군 41.05%, 비행군 51.72%) 비행군에서 더욱 심했다( $X^2=10.730, df=2, P<.05$ ). 대화가 없는 이유는 첫째 두군 모두 '부의 업무과다'이었지만(모범군 41.33%, 비행군 40.00%) 다음은 모범군의 경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20.00%)였음에 비해 비행군의 경우는 '자식에 대한 이해 부족'(24.14%)이었음이 상호 차이가 있었다( $X^2=13.262, df=6, P<.05$ ). 부와의 대화시 만족정도는 두군 모두 '그저 그렇게'(모범군 61.58%, 비행군 56.32%) 느끼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모와 나누는 하루의 평균 대화시간은 모범군(64.04%), 비행군(64.37%)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30~60분' 정도인 경우가 반수 이상이었으며, 모와의 대화기회는 두군간에 매우 차이가 심하였다( $X^2=32.502, df$

=2,  $P<.001$ ) 즉 모범군의 경우 많은 수가 모와 '빈번하게'(70.53%)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 비해 비행군의 경우 반수 이상이 '보통'(56.32%)이었다. 모와의 대화가 거의 없는 경우 그 이유는 상호 차이를 보여( $X^2=9.300, P<.004$ ) 모범군 청소년의 경우 '모의 업무과다'(57.14%) 이었고 비행군 청소년의 경우 '자식에 대한 무관심'(42.86%)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와의 대화시 두군 모두 반수 정도는 만족을 '많이 느낀다'(모범군 51.05%, 비행군 50.57%)고 하였고 그 나머지는 '그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부모와의 대화개선에 대한 미래의 계획에서 모범군 청소년의 경우 '현재의 상태에 만족'(44.74%)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비행군 청소년의 경우 많은 수가 '나 자신의 노력'(72.41%)이 절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X^2=35.519, df=6, P<.001$ ).

위와 같은 결과로 비행 청소년은 모범 청소년에 비해 그들의 부모와 나누는 대화시간, 대화의 기회, 대화후의 만족정도가 현저하게 저조하다. 이러한 이유를 청소년들은 자식에 대한 모의 무관심으로 돌리면서도 부모와의 대화개선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예측요인을 파악

<표 4-1> 모범·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관련 제 특성 비교

(N=277)

특 성	구 분	모범군(N=190)	비행군(N=87)	전체(N=277)	X <sup>2</sup> -test
		실 수(백분율)	실 수(백분율)	실수(백분율)	
부와의 평균	~20	69(36.32)	21(24.14)	90(32.49)	X <sup>2</sup> =4.096
1일 대화	20~30	36(45.26)	48(55.17)	134(48.38)	df=2
시간(분)	40~	35(18.42)	18(20.69)	53(19.13)	p=0.1290
부와의 대화기회	빈번하다	36(18.95)	17(19.54)	53(19.13)	X <sup>2</sup> =10.730*
	보통이다	76(40.00)	25(28.74)	101(36.46)	df=2
	거의없다	78(41.05)	45(51.72)	123(44.41)	p=0.0133
부와의 대화가 거의 없는 이유	업무과다	34(41.33)	18(40.00)	52(40.83)	
	지적능력저하	-( )	3(6.67)	3(2.50)	
	지나친엄격함	5(6.67)	3(6.67)	8(6.67)	X <sup>2</sup> =13.262*
	자식에 대한 이해부족	15(20.00)	11(24.44)	26(21.67)	df=6
	자식에 대한 무관심	-( )	3(6.67)	3(2.50)	p=0.0391
	자식에 대한 지나친기대	15(20.00)	4(8.89)	19(15.83)	
	기타	9(12.00)	3(6.67)	12(10.00)	
부와의 대화 만족도	많이느낀다	62(32.63)	34(39.08)	96(34.66)	X <sup>2</sup> =1.148
	그저그렇다	117(61.58)	49(45.32)	166(59.93)	df=2
	전혀느끼지못한다	11(5.79)	4(4.60)	15(5.42)	p=0.5633
모와의 평균	~30	40(15.74)	18(20.69)	58(17.36)	X <sup>2</sup> =1.711
1일 대화	30~60	114(64.04)	56(64.37)	170(64.15)	df=2
시간(분)	60~	36(20.22)	13(14.94)	49(18.49)	p=0.4251
모와의 대화 기회	빈번하다	134(70.53)	31(35.63)	165(59.57)	X <sup>2</sup> =32.501**
	보통이다	42(22.11)	49(56.32)	91(32.85)	df=2
	거의없다	14(7.37)	7(9.05)	21(7.85)	p=0.0001
모와의 대화가 거의 없는 이유	업무과다	8(57.14)	2(28.57)	10(47.62)	
	지적능력저하	-( )	-( )	-( )	
	지나친엄격함	-( )	-( )	-( )	
	자식에 대한 이해부족	1(7.14)	-( )	1(4.76)	X <sup>2</sup> =9.300
	자식에 대한 무관심	-( )	3(42.86)	3(14.29)	df=4
	자식에 대한 지나친기대	3(21.43)	-( )	3(14.29)	p=0.0540
	기타	2(14.29)	2(28.57)	4(19.05)	
모와의 대화 만족도	많이 느낀다	97(51.05)	44(50.57)	141(50.90)	X <sup>2</sup> =0.142
	그저 그렇다	88(46.32)	40(45.98)	128(46.21)	df=2
	전혀 느끼지 못한다	5(2.63)	3(3.45)	8(2.89)	p=0.9315
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계획	나 자신의 노력	69(36.32)	63(72.41)	132(47.65)	
	부모의 노력	27(14.21)	11(12.64)	38(13.72)	
	현재상태로 만족	85(44.74)	13(14.94)	98(35.38)	X <sup>2</sup> =35.519**
	내가 노력해도 부모는 응해주지 않을 것이다	1(0.53)	-( )	1(0.36)	df=6
	부모가 노력해도 나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3(1.58)	-( )	3(1.08)	p=0.0001
	현상태이상은불가능하다	2(1.05)	-( )	2(0.72)	
	기타	3(1.58)	-( )	3(1.08)	

\*P<.05 \*\*P<.001

<표 4-2>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의 단계적 중회귀 분석

변 수	R	R <sup>2</sup>	$\beta$	F
부와의 대화만족도	.5043	.2543	-.2538	93.81***
모와의 대화만족도	.5700	.3250	-.2879	65.97***
부와의 대화기회	.5981	.3578	-.1554	50.70***
자녀의 연령	.6214	.3862	-.1442	42.79***
부의 직업(숙련공)	.6400	.4096	-.1492	37.61**
모와의 대화기회	.6513	.4243	.1186	33.16***
자녀수	.6602	.4359	-.1149	29.69***
부의 직업(전문직)	.6646	.4417	-.0786	26.50***
모의 직업(숙련공)	.6682	.4465	-.0718	23.93***

\*\*P<.01 \*\*\*P<.001

하고자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제 특성을 단계적으로 중회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표 4-2)를 얻었다.

제 변수들중 부와의 대화만족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고 다변수 상관계수 .5042로 25.43% 설명할 수 있었다. 다음은 모와의 대화만족정도, 부와의 대화기회, 부의 직업(숙련공), 모와의 대화기회, 자녀수, 부의 직업(전문직) 및 모의 직업 등을 포함시킬 경우 다변수 상관계수는 6682로 44.65%까지 설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부·모와의 대화만족정도가 높고 부모와의 대화기회가 잦으며, 그리고 자녀의 수가 적고 부·모의 직업이 숙련공 전문직인 경우임이 확인되었다.

#### IV. 논 의

인간의 상호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족들은 의사소통에 의해 상호연결된다. 특히 가족내의 인간관계중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적인 관계로 인간의 성장발달에 결정적 요인이 되므로 부모-자녀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즉 대화는 자녀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모범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를 가설검증, 추가분석등을 통해 검증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청소년 가족의 경우 정상 청소년 가족에 비하여 문제가 많고 불명확하며 모순된 역기능적의사소통을 한다는 연구결과들 (Alexander와 그의 동료, 1973, 1976, 1977; Jacob, 1975; Hetherington와 Martin, 1979; Rodick, Henggler와 Hansen, 1986; Masselam, 1986)과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반응비교에서 모범군 및 비행군의 부와 모들은 10대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을 개방적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자녀들은 부 및 모와의 의사소통을 매우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Barnes와 Olson (1983, 22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 자녀는 독립이란 문제로 저항을 하고,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어떤 의존성을 가중시키는 가족생활의 영향력을 극소화 시켜 가족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성 때문이라고도 사려된다. 또한 가족체계로 부터 밖으로 벗어나려는 욕구로 집단을 객관화하고 방관자의 입장에 처할수도 있다고 사려되나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있어야 하고 장차 더욱 상세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모가 부보다 10대의 자녀들과 의사소통을 더욱 잘하고 있고 또한 더욱 개방적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청소년 역시 부모나 모쪽과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한 Olson등(198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

피는 10대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에서 모가 부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두군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반응양상은 가족의 생활주기중 청소년기 가족에서 볼 수 있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양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군간의 차이비교에서 전체적으로 비행군의 경우 모범군에 비해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이 훨씬 부정적임은 비행군의 가족의사소통이 문제가 많고 역기능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 반응에 대한 가족 3인 각각(부·모·자녀)의 지각 불일치 비교에서 부-모지간, 부-자지간, 자녀가 지각한 부-모지간의 지각불일치 반응양상이 모범군, 비행군, 모두 유사하였다. 즉 부-모간의 반응은 상호일치성이 높은 것에 비하여 나머지 반응에서는 상호불일치가 심하였고 두군간에도 차이가 있되 비행군에서 더욱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언하면 두군 공히 부모-자녀간의 세대차이가 심하되 모-자지간 보다도 부-자지간에 더욱 심하였고 두군간의 비교에서는 비행군에서 훨씬 심하였다. 이와같이 두군간의 지각불일치 비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은 가족의 생활주기를 청소년기 가족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결여 및 심한 세대간의 차이(Minuchin, 1974, 58; Satir, 1967, 92; Foley 1974, 94; Olson등, 1983)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사려된다. 그러나 두군간의 비교에서 비행군에게서 세대간의 차이가 더욱 심하였음은 부모가 정상적인 가족의 경우 부모-자녀의사소통 반응에서 부-모간의 일치성이 높고, 부-모의 지각과 더욱 가까운 반면, 부모가 정신질환자인 가족의 경우 의사소통에서 부정적이고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았다는 연구결과(Masselam, 1989, 석말숙, 1988)와 일치되나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에게서 부-자간의 지각의 일치가 부-모, 모-자보다 높았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추가분석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몇가지 관련요인을 파악한 결과 청소년 자녀들을 비행으로 부터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에 솔직한 대화시

간을 많이 갖고 서로간의 관심과 이해를 통해 가족의 화목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 사려된다. 그러므로 이시기에는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자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해 준다면 부모-청소년자녀와의 대화는 증진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개방적, 긍정적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사려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를 통해 비행청소년은 모범군에 비하여 부모-자녀간 상호관계가 부정적인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세대차이도 더욱 심하다는 것과, 또한 청소년기 가족생활 주기시에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청소년기에 자녀-부모와의 관계결여로 야기된 그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청소년은 가족의 병리현상에 의해 희생된 그 가족의 속죄양이라고 사려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가족을 의사소통체계 또는 의사소통망으로 보고 그의 기능을 통해 가족원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체계이론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모범·비행청소년간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차이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행위가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의해 기인된 가족관계의 산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 개선 요인을 밝혀 비행의 선도 및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방법을 모색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모범청소년 190가족(부·모·자녀)과 비행청소년 87가족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하였다.

가설검증을 통해 첫째, 모범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반응점수가 낮고, 개방형 및 문제형의사소통유형에서의 반응점수가 낮음과 둘째, 모범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간의 지각불일치점수에서 차이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청소년비행은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청소년기에 부정적이고 문제성 있는 의사소통으로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세대간의 차이를 심화시켜 초래된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파악한 결과 청소년기 자녀들을 비행으로 부터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자녀간의 상호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일관성있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만족수준을 높이고, 직장의 과도한 업무와 맞벌이로 가족원들과의 공유시간이 짧더라도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기회를 자주 갖기 그들의 문제를 경청 및 공감해 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비행청소년은 역기능적인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희생된 가족의 속죄양이라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선도 및 치료를 위해 가족체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재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려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개인중심의 치료방법을 탈피하여 가족전체를 개입시키는 가족치료를 대치시켜 본 것과, 근본적인 비행발생과 재발의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에서의 부모교육 또는 부모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김도순(1988), "청소년비행원인과 그 대책—가족 환경과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미영(1989), "Satir 가족치료모델에 따른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17.

김종옥(1984),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제11집, 서울특별시 시립아동 상담소, 15.

배은경(1986), "가족치료의 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석말숙(1988), "문제행동 청소년가족과 일반가족간의 가족역동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정우식편저(1986), 청소년문제 그 실상과 대책, 서울: 삼성출판사.

Alexander, J.F.(1973), "Defensive & Supportive Communication in normal & deviant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 223-132.

Bowen, M.(1965), Family Psychotherapy with Schizophrenia in the hospital & private Practice, In : I.Boszormenyi-Nagy & J.Framo(eds.), *Intensive Family Therapy*, New York : Harper & Row.

Foley, D. Vincent(1974), *An Introduction to Family Therapy*, New York : Grune & Stratton, 108.

Gurman, Alan S. & Kniskern, David, P(1981),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 /Mazel, Publishers, 270-271.

Haley, J.(1976), *Problem-Solving Therapy*, San Francisco : Jossey-Bass.

Hetherington, E.M., & Martin, B.(1979), "Family Interaction" In H.C., Quay & J.S. Framo, J. (eds), *Intensive Family Therapy*, New York : Harper & Row, 343-363. Werry(eds.), *Psyc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2nd ed.), New York : McGraw Hill.

Jacob, T.(1975), "Family Interaction in disturbed & normal families : A Methodological & Substan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 33-65.

Jansen, Curries & Harris, Oliver,(1980), *Family Treatment in Social Work Practice*, Illinois : F.E. Peacock Publishers Inc. 15.

Jackson, D., & Weakland J. (1971), "Conjoint Family Therapy : Some Consideration on theory, Technique & Results," In J. Haley, *Changing*

- Families, New York : Grune & Stratton, 16.
- Masselam, Venus Shirley(1989),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Functioning and school performance," Ph. D., Dissertation, Univ. of Maryland.
- Minuchin, S., Montalvo, B.G., Guerney, B., Rosman, B.L., & Schumer, F.(1967), *Families of the Slums : An exploration of their structure & treatment*, New York : Basic Books.
- Olson, David H. et, al(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 Family Systems : VI. Theoretical Update," *Fam, Proc.*, 22,69-83.
- Olson, David. H & Barnes, H.L.(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The Circumplex Model" *Fam, Process*, 56, 438-447.
- Hill, Steinberg (1978), "Generic features of families under stress," *Social Care Work* 49, 139-150.
- Hoffman, L.(1981), *Foundations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asic Books, Inc., Publishers.
- Satir, Virginia(1967), *Conjoint Family Therapy(2nd ed)*, Palo Alto : Science & Behavior Books. 96.
- Tolan, Patric(1986), "Family Therapy with Delinquents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Family Proc.* 25, 620-621.
- Steinbock, L.(1977), "*nest-leaving ; family systems of runaway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Walsh, Froma, (1982), *Normal Family Process*,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12.
- Windell, J.C., & Windell, E.A.(1977), "Parent Group Training Programs in Juvenile Courts : A National Survey." *Family Coordinator* 26 : 450-463.
- Witaker, C.A., & Keith, D.V.(1981), "Symbolic-Experiential family therapy." In A.S. Gurman & D.P.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157-225.
- Wynne, L.C., Ryckoff, I.M., Day, J. & Hirsch, S.I. (1958). "Pseudomutuality in the Family relations of schizophrenics," *Psychiatry*, 21, 205-222.
- Yalom, I.(1970),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 Basic Books.